

코스 : 남산탐방길

매월 1일요일 09:30 ~ 16:30

출발 : 월정교 주차장

가는곳 : 도당산, 해목령, 금오정, 불곡

남산탐방길

남산은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 분지의 남쪽에 있으며, 불교유적의 보고(寶庫)이자 신라인들의 영산(靈山)이며, 신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북의 금오봉(金鰲峰, 468m)과 남의 고위봉(高位峰, 494m)을 중심으로 동서 너비 4km, 남북 길이 9km의 타원형으로, 한 마리의 거북이 서라벌 깊숙이 들어와 엎드린 형상이다. 골은 깊고 능선은 변화무쌍하여 기암괴석이 만물상을 이루었으니 작으면서도 큰 산이다. 남산에는 온갖 전설이 남아 있고, 신라의 흥망성쇠를 함께 한 역사의 산이며, 선조들의 숨결이 가득한 민족문화의 산실이다.

이 산 주변에는 신석기 말기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신라시조 박혁거세거서간이 탄강(誕降)하신 나정(蘿井)과 초기 왕궁, 나을신궁(奈乙神宮), 왕릉이 즐비하며, 도성(都城)을 지켜온 남산신성(南山新城)을 비롯한 4곳의 산성과, 망국의 한이 서린 포석정지(鮑石亭址)가 있고, 수많은 불상과 탑들이 남아 있어 남산은 실로 신라 천년의 역사와 함께 한 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서 깊은 산 기슭에 신라궁성의 다리였던 월정교가 복원되고, 도당산터널이 건설되면서 남산탐방길이 조성되어 남산의 유적을 찾기가 한결 쉬워졌다. 이에 남산탐방길을 따라가면서 신라 천년의 역사와 신앙과 정서를 듬뿍 느껴보자.

- 월정교 찾아가기 -

- 도 보 : 버스터미널, 경주역 등에서 약 15~30분 소요.
- 승 용 차 : 고속도로 나와서 3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오릉방향)하여 700m 정도 진행하여 다리(남천교) 직전에서 우회전 하여, 650m 지점에서 월정교가 보이며 그 앞에 월정교 주차장이 있다.
- 택 시 : 시내에서 월정교 주차장으로 가면 됨. 5~10분 소요.
요금 3,000~5,000원 정도.
- 시내버스 : 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 앞은 아님), 경주역 등에서 내남행(500, 502, 505, 506, 507, 508번) 버스를 타고 탑리마을에서 하차(약 10분 소요), 월정교 방향 도로로 약 10분 소요. 배차시간은 500번이 30분.

📍 월정교주차장 : 경주시 천원2길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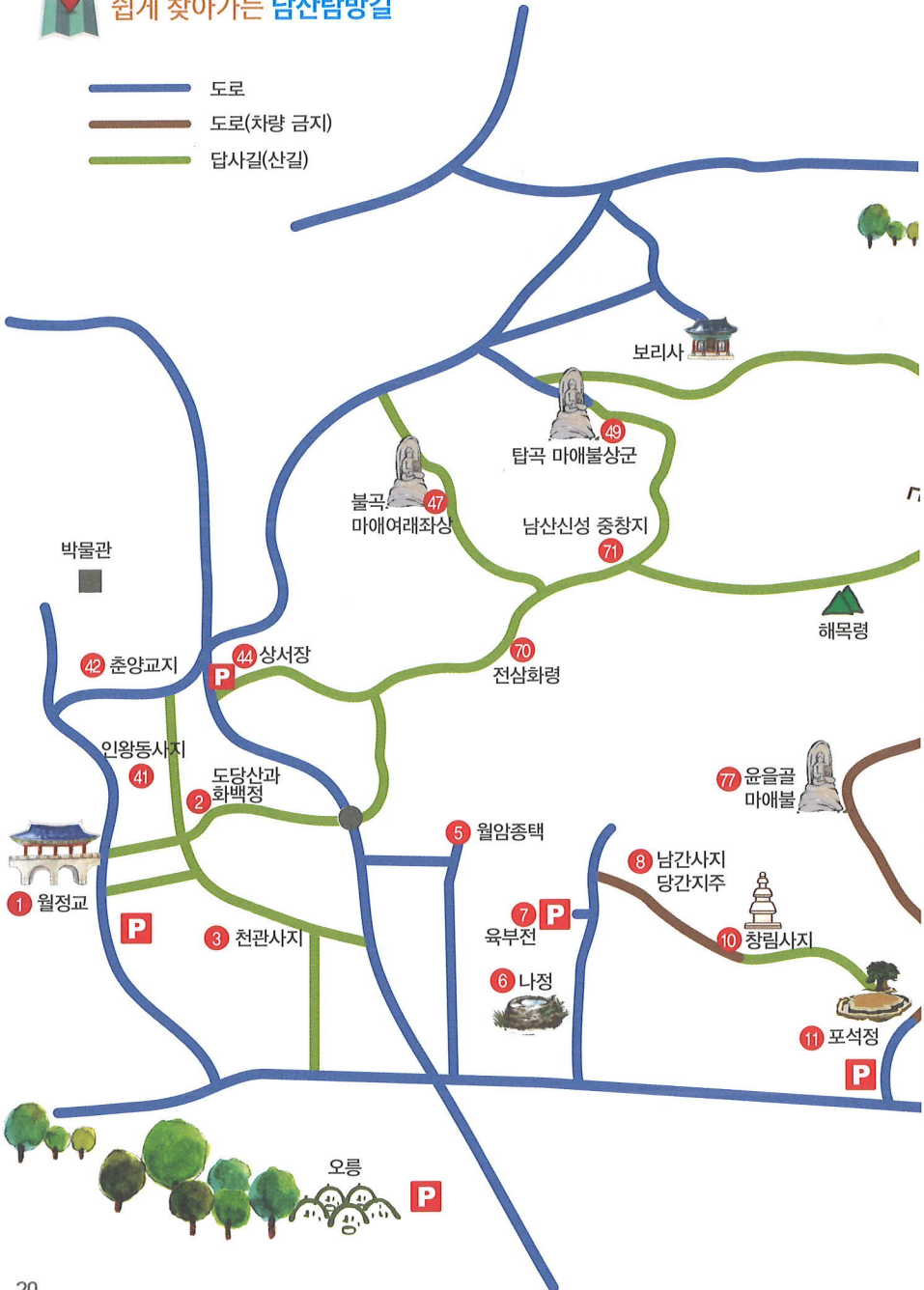
- 18 ○ 남산탐방길
- 20 ○ 쉽게 찾아가는 남산탐방길
- 34 ① 월정교
- 35 ② 도당산과 화백정
- 92 ⑦ 전 삼화령
- 93 ⑦ 남산신성
- 94 ⑦ 금오정





쉽게 찾아가는 남산탐방길

- 도로
- 도로(차량 금지)
- 답사길(산길)



○ 월정교^①

사적 457호

월정교는 신라 천년 궁성이었던 월성을 감싸고 흐르는 문천 위에 놓인 다리다. 서라벌의 남쪽에서 왕경의 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또한 왕궁에서 남산신성과 남산의 수많은 절들로 가는 통로이다. 이 다리를 건너면 인룡사, 천관사, 나정과 신궁, 창림사, 포석정, 오름, 삼릉 등 수 많은 역사유적과 만나게 된다.

『삼국사기』에 “**경덕왕 19년(760) 2월 궁궐 남쪽 문천 위에 월정(月淨)·춘양(春陽) 두 다리를 놓았다.**” 하였다. 당시 신라는 18만호 규모의 국제적인 대도시였고, 천년 역사 중 정치적·문화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번영하던 시기였다.

이후 고려 충렬왕 6년(1280)에 수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520년 이상 사용되었던 다리이다. 발굴조사결과 4개의 교각과 길이 63m, 폭 12m로 회랑 형태의 누각형 다리임이 확인되어 그렇게 복원하였다.

경덕왕 24년(765) 3월 3일 충담스님이 이 다리를 건너 귀정문(歸正門)에서 경덕왕을 만나 차 한 잔 올리고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올렸다.

임금은 아버지요,
산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시고,
백성들은 어린아이라 여기시면,
백성들이 스스로 사랑받는 줄 알리이다.
궁궐거리며 사는 백성들이
사랑을 먹고 스스로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면,
나라 안이 가히 되어 감을 알리이다.
아 ~ 아 ~ 임금람제, 산하람제, 백성람제 한다면,
나라 안은 태평 할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 남산을 내려와서 요석궁으로 들어갈 때 물에 빠진 다리는 19m 아래에 있던 유교(楸橋:느릅나무다리)였다.

📍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1)에서 걸어서 4분



도당산과 화백정^② ○

남산에서 북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끝머리에 솟은 산이 도당산이다. 세 봉우리로 이루어진 작은 산이며 월성에서 마주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산이다. 이 산에는 원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어 도당토성으로 불리어지며,

『삼국유사』 <진덕왕>조에 기록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곳에서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령지의 우지암으로 추정되고 있다.

28대 진력왕때 알천공·임종공·술종공·호검공·염장공·유신공이 남산의 우지암에 모여 나라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큰 밤 한 마리가 좌중에 뛰어 들었다. 모두 놀라 일어났으나 알천공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당도하면서 밤의 꼬리를 잡아 땅에 매쳐 죽였다. 알천공의 완력이 이와 같아 뒷자리에 앉았으나, 여러 공들은 유신공의 위엄에 감복하였다. 신라에는 네 곳의 신경스러운 땅이 있어 나라의 큰일을 의논할 때 그곳에 모여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 첫째는 동쪽의 청송산이요, 둘째는 남쪽의 우지산이요, 셋째는 서쪽의 피전이요, 넷째는 북쪽의 금강산이다.

2016년 남산탐방길을 조성하면서 화백정을 세워 놓으니, 이곳에서 월성과 월정교 등 신라도성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화백(和白) - 『新唐書(신당서)』 「東夷列傳 新羅(동이열전 신라)」편에 있다.

...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 ...

(나라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하는데, 이를 화백이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그만두었다.

📍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1)에서 걸어서 10분



○ 전 삼화령^㉟

1923년 출토되어 1925년 박물관으로 옮겨진 삼존불이 출토된 곳이다.

이 곳을 삼화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혹은 용장계곡의 대연화대를 삼화령으로 보기도 한다.

『삼국유사』 「생의사 석미륵」 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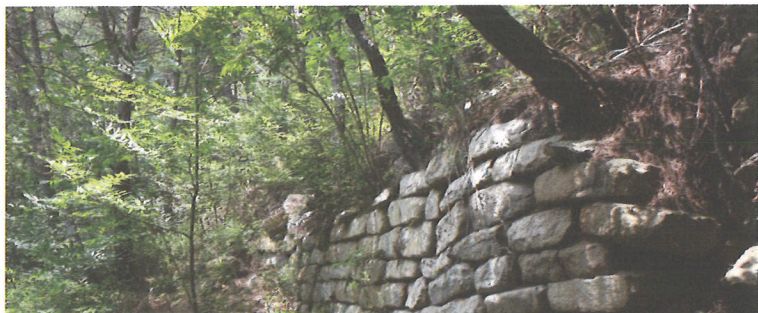
선덕왕대에 생의스님은 항상 도주사에 있었는데 꿈에 한 승려가 그를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묶어 표를 해 놓게 하고는 산 남쪽 골짜기에 와서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나를 파내서 고개 위에 올려달라”고 했다. 꿈에서 깨자 그는 친구와 함께 표해 놓은 곳을 찾아 골짜기에 이르러 땅을 파 보니 돌미륵이 나오므로 삼화령 위로 안치하였다. 선덕왕 13년(644년) 그곳에 절을 세우고 생의사가 했다.(충당스님이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다려서 공양한 부처다)

『삼국유사』 「경덕대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에

경덕왕 24년(765) 3월 3일 귀정문 누각 위에 올라 좌우 산하들에게 “길에서 위엄과 풍모가 있는 스님 한 분을 데려오라”고 했다. 한 스님이 남의를 입고 등에 나무통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해

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남산 삼화령에 있는 미륵 세존께 차를 다려 공양하고 돌아오는 충담이었다. 왕은 충담이 다려 바친 차를 마시고 난 뒤 백성을 편히 다스릴 수 있는 노래를 지어 주었다. 충당스님은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니, 안민가다.(61쪽에 있음)





『삼국사기』에 “진평왕 13년(591) 7월에 남산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854보였다.” 하였고 1934년 발견된 「南山新城碑」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문무왕이 왕위에 올라 남산에 큰 창고를 설치하였는데 길이가 50보이고 너비가 15보이다. 이곳에 미곡과 병기를 저장하였다. 이것이 우창(右倉)이며, 천은사 서쪽쪽 산 위에 있는 것이 좌창(左倉)이라 한다.” 하였고, “혜공왕 4년

(768) 7월 3일 대공각간이 반란을 일으켜 서울과 5도 주군의 96각간이 서로 싸워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다. 신성의 장창이 불에 탔다.” 하였다.

26대 진평왕 때 쌓은 남산신성은 4850m가 확인되고 있으며, 지금도 곳곳에 벽돌처럼 쌓은 성벽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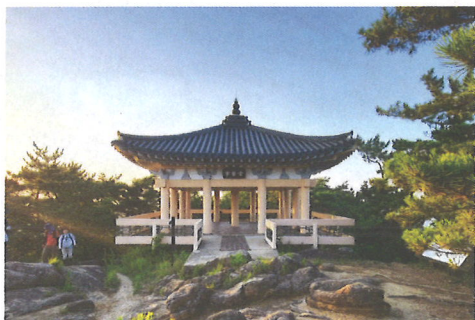
문무왕 때 설치한 우창은 통일된 왕국의 위엄의 상징이었고, 혜공왕 때 불타고 다시 짓지 못한 것 같다. 지금도 우창 터에는 이 때 타다 숲이 된 탄화미가 나오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 잡지 제사조에 의하면,

“12월의 인일(寅日)에는 신성의 북문에서 팔자(八祿: 농사를 도와준 8신)를 제사하되, 동년에는 대뢰(大牢)를 쓰고 흉년에는 소뢰(小牢)를 썼다. 임춘 후 해일에는 명활성 남쪽 응살곡에서 선농을 제사하고, 임하후 해일에는 신성의 북문에서 중농을 제사 한다.” 하여 신성의 북문이 신성스러운 곳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금오정(金鰲亭)⁷²

1966년 남산관광일주도로가 준공된 이후 경주에서 세운 정자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동으로는 토함산 불국사와 조양들, 북으로는 남산의 북쪽 능선, 봉우리들과 신라 천년의 궁성인 월성과 도성, 서로는 단석산과 내남의 가람들이 펼쳐져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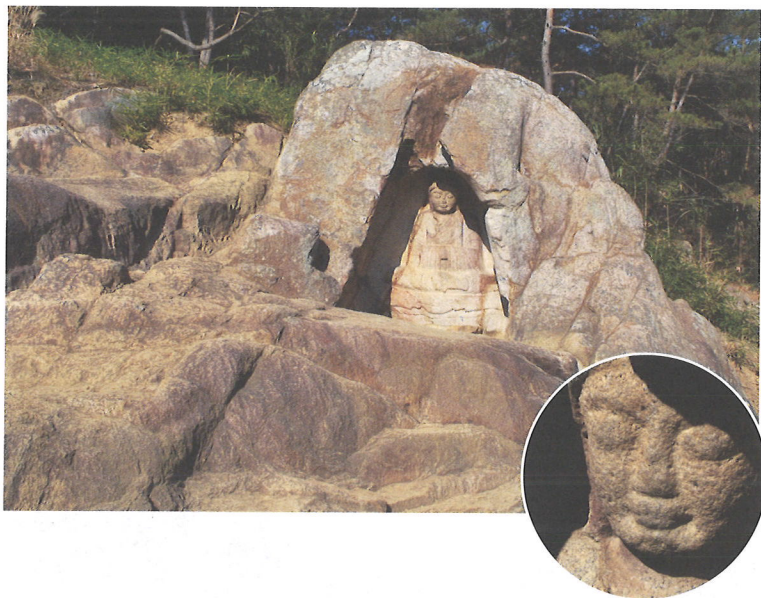


○ 상사바위⁷³

도로 옆 국사골의 능선에 있는 바위로서, 높이 10여 m 되는 거암인데, 가파른 산위에 있어 더욱 높게 보인다. 바위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할아버지와 소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 바위에는 할아버지와 소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죽어서 변하지 않는 바위로 사랑을 이루고 있다는 애절한 전설이 전해져 온다.

불국마애여래좌상⁴⁷⁾

보물 198호



너비 4.5m, 높이 3.2m 쯤 되는 바위에 무지개 모양의 감실을 파고 시골 할머니 같은 부처님을 새겨 놓았다. 얼굴은 고부조로 새기고, 신체는 약간 낮게, 대좌는 저부조로 조성하였다. 편평한 신체, 크고 둥근 얼굴은 명상에 잠긴 듯이 다소곳이 숙이고, 낮은 육계와 소발의 머리는 미끄러지듯 귀와 어깨를 덮었다. 뭉툭한 코, 푹박진 눈은 그림자가 어려 부드러운 눈썹과 명상에 잠긴 듯한 눈매를 그려낸다. 도톰한 입술, 뺨 등은 부드러운 볼륨으로 부풀어 있다. 네모난 어깨, 넓은 무릎은 육중하면서도 안정된 구도를 취하고 있다. 통견의 법의 사이로 드러난 가슴은 사각형으로 표현되었고, 깊고 강렬한 선각으로 새긴 옷 주름은 소매 사이로 흘러내려 폭포수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수인은 선정인으로 추정 되고 있다. 신라인들은 바위에 부처를 새긴 것이 아니라, 바위 속의 부처를 찾아내었다. 좁은 굴속에 있으면서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은 시골 할머니가 돌로 만든 집 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 불상은 불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조각의 고식, 육계와 어깨, 수인과 소매, 옷 주름의 간결하고 거친 조각, 상현좌, 발 조각의 고졸함 등으로 보아 고신라 시대의 신라에서 가장 오랜 석불(마애불)로 꼽혀지고 있으며, 흔히 석굴사원의 선행 양식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경주시 인왕동 180-3



남산 북쪽 기슭에 자리한 상서장은 남산 서북쪽에 있는 독서당과 함께 고운 최치원(857~?) 선생의 유적이다.

경문왕 때(868년) 12살의 나이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장안에서 공부한지 7년 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881년 산둥지방에서 일어난 황소의 난 때 지은 <격황소서>로 당나라에서 널리 문장으로 이름을 드날렸다.

이후 헝강왕때 신라로 돌아 왔으나, 골품제의 한계와 국정의 문란으로 뜻을 펼 수가 없었다.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리고 많은 저술과 비문을 남겼는데, 그 중 <계원필경>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문집이다.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선생은 고려 태조가 비상한 사람으로 천명을 받아 장차 나라를 열 것을 알고 편지로 문안하였는데, 그 글 중에 “**제검은 황엽이요, 궤경은 청송이려**”는 구절이 있었다. 고려 현종 때 선생이 고려 건국에 숨은 공로가 있다하여 내사령의 벼슬과 문창후라는 시호를 추증하고 문묘에 배향하였다. 그 후로 살던 집을 ‘상서장’이라 하였으니 태조 왕건에게 글을 올린 집이란 뜻이다. 또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를 올린 곳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인왕동 사지⁽⁴¹⁾ ○

사적 533호

『삼국유사』〈문무왕 법민〉조에 인문이 옥중에 있을 때 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절을 지어 인용사라 하고 관음도량을 열었는데 인문이 돌아오다 바다 위에서 죽으니 미타도량으로 고쳤다. 지금까지도 그 절이 남아 있다.

김인문(629~694)은 문무왕의 동생으로 22년 동안 당나라에서 외교활동을 펼치며 숙위(宿衛)하였다. 신라와의 싸움에서 패한 당 고종이 인문을 옥에 가두니 왕은 강수를 시켜서 석방해 달라는 글을 지어 당 고종에게 보냈다. 고종은 애절한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문을 방면하였다. 인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인용사를 짓고 관음도량을 열었다. 인문이 귀국 도중 바다 위에서 죽어 미타도량으로 고쳐 극락왕생을 빌었다하니, 인용사는 신라인들의 눈물과 정성으로 이룩된 절이다.

발굴조사 결과 통일기의 쌍탑가람으로 확인되었고 인용사로 볼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절 앞 연못에서는 연꽃씨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인왕동 사지로 이름을 바꾸었다.

📍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0)에서 도보 5분

